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정기국회서 완수”

민주 최고위 “내란 척결은 시대 정신...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같아” “무안공항 조속한 재개항 필요” 제주항공 사고 후속 대책 마련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있다”면서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이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며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지배 카르텔이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이다”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이 (말했던) ‘호수 위에 비친 달과 같다’에 대한 부장부수 폄비네이션 플레이나,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라면서 “국민께 진짜 송구하나, 새빨간 거짓말이나, 아니면 어쭙잡은 신과극연기냐”고 지적했다.

또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가망신 꼴볼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사진 패널을 당 대표실 복도에 전시했다며 “이 수첩은 무고한 시민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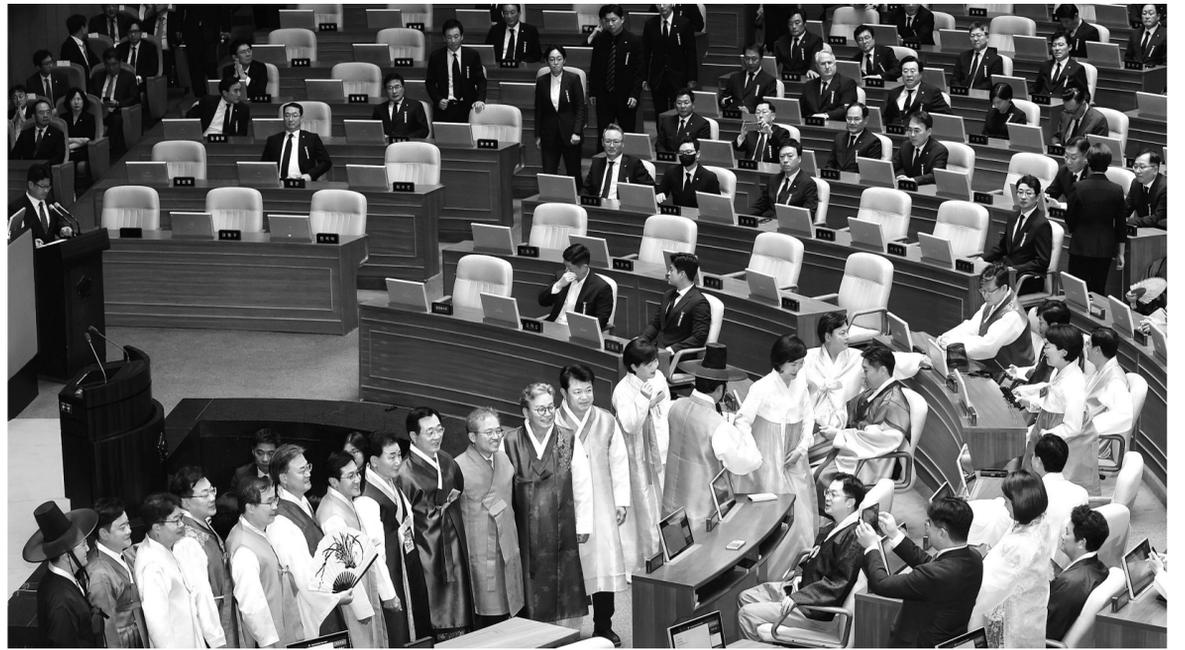
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수백명, 수천명을 살해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5·18 때처럼 암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주항공 사고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사고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하며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함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안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안공항은 2019년 89만 여명이 이용하며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객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안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국제 물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 공항으로 조속한 재개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기국회 첫날 ‘극과 극’ 풍경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힘 광주시당, 지방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

부위원장 등 의사 결정 라인 정비...중소상공 등 8개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정비와 외연 확장에 나섰다.

1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안태욱 국힘 광주시당위원장 체제 출범 직후 운영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특별위원회와 당협 기간조직 정비를 축으로 현장 기반을 넓히는 실무에 착수했다.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광주 지역의 낮은 보수지지 기반을 보완하고, 정책-인재-현장 삼각 축을 통한 성장이 골자다.

국힘 광주시당은 부위원장과 상설위원회, 지역 전국위원 등 시당 운영위원 인선을 정비해 의사결정 라인을 정비했다.

이어 당세 확장과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방자치, 정책·공약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한 8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당 산하 8개 당협의 기간조직도 재점검해 선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9월부터 현장 소통도 본격화한다. 각 당협별로 핵심 당원 간담회를 열어 조직 결속을 다지고, 제

기된 의견을 시장 운영에 반영하는 구조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봉사활동과 민생 체험, 소상공인·서민층·사회적 약자 접촉을 확대해 지역 현안과 생활정책을 발굴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대안 기능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인재 풀 확장도 병행한다. 시장은 올 하반기 대학생과 청년 실업인, 각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해 정치 신인 영입에 나선다.

전통적 보수 정당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교육과정 수료자를 당협 실무와 정책 기획에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을 메시지로 제시했다.

안태욱 위원장은 “현장 활동을 통해 당세 확장과 지지를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당원의 금지와 단결, 변화와 혁신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혁신당, 11월 전당대회...조국, 대표직 복귀 ‘속도’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극우 본당’ 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로,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윤석열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견제해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민주 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류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힘을 보태겠다”며 “영어(囹圄) 생활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원장은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하면서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 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

크’가 되겠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전천후, 그러나 서두르겠다. 일회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출소 직후 당직을 맡는 등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활발히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전 대표였던 조 원장의 부재 기간 구했던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고 조 원장이 대표직에 복귀하는 데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혁신당은 오는 11월 중순께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조 원장의 지역 방문 행보에 대해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낮게 더 밀로 가겠다는 취지”라며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정”

대통령실 “이달 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사신) 의원은 1일 검찰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관련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나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를 두고 여러 내 입장차가 불거졌는데 전일 이 쟁점을 정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도) 토의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개혁안의) 일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